

제16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2. 9. 7.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9월 7일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김 주 현 위 원 장

김 소 영 부위원장

권 대 영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의결 제250~264호)

이 복 현 위 원

김 용 진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2년도 제15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6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 2022년도 제15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6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250호 『예금보험공사 2022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예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국회의 요청에 따라 공적자금 재계산 착수 시점을 '22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22년도 예보 예산안 중 재계산 용역 지급수수료를 증액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51호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훈령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는 내용

- (위원) 공익신고와 관련된 인원과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 (보고자) 예산은 없고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다른 업무와 함께 수행하고 있음. 포상금 관련 예산이 없기 때문에 권익위원회에 추천하면 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위원) 그동안 예산이 수반된 공익신고가 1건이라도 있었는지?
- (보고자) 없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2호 『금융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훈령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신분비밀보장 보호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3호 『신용회복위원회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지원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추진함에
있어 「신용회복위원회 정관」 개정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인 소상공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4호 『(주)우리카드 외 3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심사안』, 제255호 『신한카드(주) 외 5개 카드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56호 『(주)뮤직카우 및 키움증권(주)
등 2개 신탁회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57호
『IBK투자증권 외 4개 증권사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58호 『네이버파이낸셜(주) 및 (주)하나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 제259호 『(주)4차혁명의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한 심사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2년도 제5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비스로,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되는 등 금융혁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내용

- (위원)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슈가 (주)뮤직카우와 같은 가상자산거래에 있어서는 사전에 큰 틀을 만들어서,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이 하나로 운영되는 구조라든지, 상대매매방식인데 다자간 경쟁방식으로 바꾸라든지 등 이러한 가상자산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정리를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법제화 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점점 활성화되면 우리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니, 사전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신지?
- (위원) 네이버파이낸셜(주)과 (주)하나은행 서비스에 있어서 제가 지난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서 금산분리 이슈를 들었는데, 전세계적으로 핀테크와 은행 또 금융이 같이 제휴하는 경우는 있지만 빅테크에게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입법례인 것 같습니다. 정보의 독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빅테크가 (주)하나은행에 대해서 일종의 예금중개를 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수시입출금예금이 (주)하나은행으로 몰려서 수신고가 굉장히 늘어나는 효과를 갖게 될 텐데 중·장기적으로 잘못하면 (주)하나은행이 빅테크에 예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휴 계좌수를 50만 개로 제한한 것 같지만 이용자들이 한도를 늘려달라고 할 경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빅테크에 대해서 일종의 길을 뚫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운영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신지?
- (위원) 전금법이 개정되면 후불결제수단도 들어오게 되는데 빅테크 기업들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음. 점점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쪽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된 기준 마련이라든지, 또는 제도적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
- (위원)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2년 후에 연장 시 그 부분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정책적 대안을 같이 고민해서 연장 여부 같은 것들을 안건으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추가로 (주)뮤직카우와 관련해서 저도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다만, 넓은 의미의 가상자산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증권형 토큰이라든가 다른 제도로 증권성을 인정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발행·유통 분리의 문제는 남는 것이고, 이러한 형태의 발행·유통 분리를 특정 부문에 일방적으로 부여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시행 이후에 유사한 형태의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발행·유통을 일단 당장은 허용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2년 이후에 연장을 할 때 어떠한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고 증권형 토큰이 그 사이에 인정이 된다면 그것들을 거래소 쪽으로 어떻게 넘길지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의견을 드림.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규제혁신TF를 하다 보니까 샌드박스 운영과 관련되어서 신청인 측에는 여러 가지 부가조건을 부과하는데, 지금은 상당기간이 경과해서 4년이 다 된 업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국면인데 이를 법제화나 제도화 해야한다면 우리 금융당국 쪽에서도 관련 법령에 대한 로드맵을 외부에 공표할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하고 감독규정을 어떻게 개정할지 등등이 로드맵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겠음. 왜냐하면 보통 아무리 길어도 담당자가 1년 이상 가지 않고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시스템화 되지 않았다면, 4년이 지난 시점에 있는 담당자들이 허둥지둥 규정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상황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음. 규제혁신TF 때 혁신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감독당국의 조치와 관련된 중간절차도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음. 규제혁신TF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금융위 관련부서도 한 번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음.

- (위원) (주)뮤직카우 건은 금융투자증권의 발행·유통과 관련되어 지금 혁신서비스로 하고 있는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것이 사례가 많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발행하고 유통시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주)뮤직카우가 투자중개업도 같이 겸한다고 했는데, 조금씩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대로 (주)뮤직카우와 같은 형식으로 무조건 조각투자라고 하면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제도화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이것대로 가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해서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등등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적당한 시기에 논의가 한 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임. 네이버파이낸셜(주)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혁신서비스로 했겠지만 조금은 생각해 볼 포인트는 있는 것 같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포인트, 앞으로 이런 식으로 빅테크와 은행이 연결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조금 더 생각해서, 어쨌든 혁신서비스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모니터링도 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신호를 빨리 주는 것이 조금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번에도 카드를 이용한 소액송금 같은 것을 보니까 외국환관리규정을 바꾸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는 없이 또 2년을 연장하니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음. 그래서 일단 무조건 연기하고 4년 뒤에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보다는 연기할 때 입법 일정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조금 더 제도가 탄탄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검토하고 적절한 시간 내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음.

- (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를 들어 2년을 했으면 그 이후에 2년을 할 때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법제도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음.

○ (위원) 그 문제도 연기를 할 때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입법 가능성이나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해주는 것이 조금 더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음. 또한, 연기를 계속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더 깊게 연구를 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음에 적절한 기회에 같이 한 번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람.

○ (보고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0호 『디에스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디에스자산운용(주)의 공모 집합투자업을 인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1호 『동서울농업협동조합 등 5개 지역농협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동서울농업협동조합 등 5개 지역농협의 집합투자증권 투자
중개업 등을 허용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2호 『유안타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유안타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3호 『(가칭)나틱시스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예비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가칭)나틱시스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에
대해 예비인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4호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인가조건 변경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및 인가조건 변경 신청에 대해 변경인가 및 인가조건을 변경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5호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추가적인 위험평가 평가결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삼성·교보·DB·한화·현대차·미래에셋)의 '21년말 기준 자본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평가결과를 보고하는 내용

- (위원) 굉장히 중요한 법적체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봄. 문제는 금융지주회사나 일반금융회사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적기시정조치 과정을 거쳐서 부실금융기관 지정까지 하게 되는 절차였는데, 복합기업집단은 그룹인데다가 하나로 묶여 있는 법적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의 체계성이라는 부분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와 있는 것 같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제도적인 완비성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 (보고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거기에 추가로 미흡할 경우, 중복자본을 제외한 것에서 100% 미달될 경우에는 적기 시정조치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보니까 규개위에서 논의할 때, 데이터가 쌓이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45호 『전환사채 시장동향 및 관련 제도개선방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전환사채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보완방안을 보고하는 내용

- (위원) 미국 등 다른 나라에도 상환전환우선주나 전환우선주에 대해서 콜옵션이나 리픽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 (보고자) 미국은 해당 종류주식보다는 주로 보통주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특이한 거래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규제를 하면 예상치 못한 대응들이 발생하고 있음. 금

번 제도보완방안이 시행되더라도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임. 왜곡된 형태의 시장을 계속 존재하도록 놔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보고자)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자금공급에 비해 많았고, 그러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 형태가 있어왔음. 시장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음.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금융위원회 제16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4시 59분 폐회)